

美 '스텔스 전폭기' 한국에 배치

<F-11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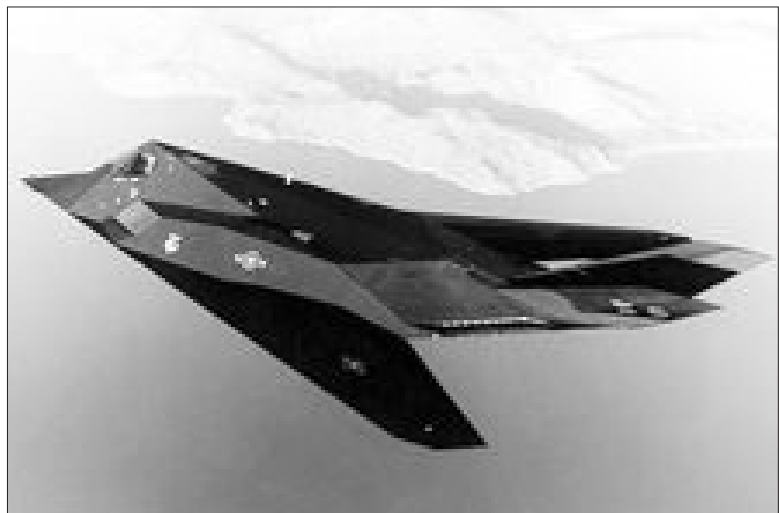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준비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본토에 있는 F-117A 전폭기(일명 나이크호크) 1개 비행편대와 최신형 F-22(일명 랩터) 전투기 12대가 조만간 한국과 일본에 각각 수개월씩 장기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뉴멕시코주 홀러먼에 위치한 미 공군 제49전투비행단의 톰 플라 대변인은 8일 F-117 1개 비행편대와 300명의 장병들이 앞으로 4개월간 한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에어포스타임스가 보도했다.

플라 대변인은 이번 F-117배치는 이미 예정됐던 것으로, 어떤 특별한 군사적 위협이나 행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서 태평양에서 군사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플라 대변인은 이번 전개동안 미군 전투조종사들과 장병들이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장거리 전방지역으로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는 훈련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개편대 300명 4개월간...3월 '연합훈련' 관련된 듯
日 오키나와 기지에는 F-22 12대 내달초 배치



한국에 배치될 예정인 F-117A 전폭기(일명 나이크 호크)의 비행 모습. 스텔스기로 더 유명한 이 비행기는 걸프전에서 그 위용을 보인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F-117 비행편대의 한반도 배치는 오는 3월말로 예정된 F-117A 전폭기는 적의 레이더망 한미연합전시지원연습(RSOD)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F-117A 전폭기는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기'로 잘 알려진

려져 있고, 지난 2001년 걸프전쟁 때 위용을 보인 바 있으며 한반도에는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 배치된 바 있다.

한편, 미 공군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신형인 F-22 전투기 12대를 내달 초부터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일시 배치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과 AP통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플 헤스터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버지니아주 랭기거지에 있는 F-22 전투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 배치될 일본 자위대 및 주일미군 등과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22 전투기는 미 공군이 운용중인 F-15와 F-16, F-117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돼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됐으나 해외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에 있어서 동북아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F-22는 최소한 몇 주간, 길 경우 5개월 정도 머물게 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억5천만년 뒤 지구 한덩어리 된다

인도양→내해, 지중해→산맥으로
NYT, 지질학자 '관구조론' 소개

"2억5천만년 뒤 지구에는 '판게아 울티마'라는 초대륙(판게아)만이 존재하며 대서양은 사라지고 인도양은 이 초대륙의 내해가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9일 과거와 미래의 지구모습을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관구조론을 기초로 지질학자들이 예상한 미래 지구의 모습을 소개했다.

관구조론은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뤄져 있고 이 판들의 움직임으로 새로운 암석권과 화산활동,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론으로 지난 1915년 독일 기상학자이자 지구물리학자인 알프레도 베게너가 내놓은 대륙이동설의 발전된 형태이다.

지질학자들은 5천만년 뒤에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이 '아프라시아'로 불리는 하나의 대륙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중해는 하나의 거대한 산맥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의 활동으로 로스앤젤레스가 샌프란시스코의 북쪽 교외지역에 위치해 북미대

륙의 모습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대학의 지질학자인 크리스토퍼 스코티즈 박사는 2천500만년에서 7천500만년 사이에 지중해가 사라지고 호주 대륙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충돌하며 이후 필리핀을 거쳐 아시아대륙에 붙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스코티즈 박사는 또한 남극 대륙도 북으로 이동, 1억년 뒤에는 현재의 인도양으로 진입, 2억5천만년 뒤에는 남미대륙과 호주대륙을 포함한 아프리카대륙과 연결되면서 인도양을 내해로 만들 것이라면서 그 사이에 북미대륙과 아프리카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초대륙 판게아 울티마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게아 울티마 탄생을 전망하는 지질학자들은 초대륙 형성과정에서 대서양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서양 대신 태평양이 사라지면서 다른 형태의 초대륙인 '아메이시아'가 탄생할 것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지질학자들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2억5천만년 뒤 지구의 모습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지만 과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이러한 전망이 지질학 핵심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美, 소말리아 폭격 민간인 27명 사망

미국이 9일 소말리아에 은신해 있는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 조직원 용의자들을 겨냥해 공습을 감행, 27명이 사망했다고 소말리아 국방부 관계자 등이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군의 공습이 불안한 정정의 소말리아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오전 수도 모가디슈에서 남서쪽으로 250km 떨어진 아프마두우 마을에 전투 헬기를 동원, 최소한 2차례 이상 공습했으며, 이 공습으로 27명 사망을 포함해 민간인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전날 C-130 수송기를 공격용으로 개조한 군용기를 동원, 소말리아 남부 라스카모니 지역의 두 곳을 공습했다.

미국이 지난 1993년 '블랙호크 다운' 악몽 이후 소말리아에서 철수한 이래 이 나라에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미של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반기문 총장이 "미군의 공습 동기에 관계없이 미군의 공습이 초래할 새로운 상황과 적대행위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기디슈AP=연합뉴스

"미군기지, 가장 빠른 시기에 이전"

송민순 외교 정례브리핑 밝혀

"불친절" 선양 총영사관 감사중

송민순 외교교통상부 장관은 10일 주한미군 기지 이전 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이전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기지가전 시기 문제는 한미간 협상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 가능한 시간을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마치 이 문제를 두고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양국 국방당국에서 기지 이전 시기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차기 6자회담 일정과 관련, "현재 관련국들이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으며 다음 회담이 열리면 생산적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회담 참가국들의 공통된 입장"

이라며 "가급적 조기에 열리길 바라는 공감대가 참가국간에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BDA(방코델타아시아) 북한 계좌동결 문제에 언급, "BDA 문제를 포함한 금융문제에 대해 미-북간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로 해명이 이뤄지고 있어 그 것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하노이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동해 명칭을 '평화의 바다'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에 대해 "발상을 전환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시적 성격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그 바다 이름이 동해라는 것이고 그 명칭을 국제수로 기구(IHO)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북한 남북여부 최유일씨를 주 선양 총영사관 직원이 박대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면밀하지 못했고 착오가 있었다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정부는 재외국민 영사대사를 단장으로 한 관계자들을 현지 공관에 파견, 공관 업무 수요를 심사·분석 중이다"고 송 장관은 밝혔다.

/연합뉴스

比 경찰 '청상회의' 대테러 비상훈련

美, 이라크 1차 증원군 이달말까지 투입



필리핀 경찰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회 개최도시인 세부 시내에서 테러에 대비한 비상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약 2만명 증강하고 오는 11월까지 이라크 18개주 전역의 작전권을 이라크군에 넘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하는 이라크 미군 증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혀 이라크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이 밝힐 새 이라크 전 작에는 바드다드에 미군 병력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서부 안바르 주에도 4천명 증강하는 등 총 2만여명의 병력을 증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까지 이라크 내 18개주 전역의 작전통제권을 이라크군에 넘길 것임도 밝힐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는 이라크 전 지역 중 3개주에서만 이라크군이 작전권을 맡고 있다.

최대 2만명의 미군은 부시 대통령의 증강 발표에 따라 배치 준비태세를 갖추겠지만 1차 증원군은 이달말 이전에 이라크에 투입될 것이라고 AP통신은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김재규 경찰학원

KPA 회원 2006년 1차 최종합격 총 156명
2006년 2차 최종합격 총 142명

1일 15일 개강 (수시접수)

- ①6개월 / 1년 회원제
오전 7시~12시 / 오후 2시~5시 / 토요일 9시~12시 / 6강
- ②2개월 이론종합반
오전 7시~12시 / 토요일 9시~12시 / 6강
- ③문제풀이반(이론1일개강)
오전 7시~12시 / 토요일 9시~12시 / 6강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교수진 그대로 광주에서 강의합니다.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김재규 교수	조태엽 교수	윤경근 교수
수사	영어	영어
오수평 교수	오순아 교수	김지선 교수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날이고 후원 받**
www.police3112.net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올짜수준** **2시간반** **수시접수중**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실시예상!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교정직 특채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2007년 3월~5월중 실시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800여명 모집예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www.kjkimyoung.co.kr

2008년 1월 시험대비 1학년 대비반 개강
개강: 1월 8일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1월 11일(목)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1월 8일
개설과목: 영어/영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면임학원 동부경찰서 ☎227-8088

Inovation of chair!
그동안 허리없는 의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싱크백에는 허리가 있습니다

운동기능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팔을 팔걸이에 얹어 놓고 발을 발걸이에 얹은 후 허리를 좌우로 돌리면 허리의 이렛부분이 최대 180도까지 회전되어 협소한 업무 공간에서도 복부의 허리 운동이 가능하므로 복부비만 예방, 다이어트, 허리라인의 교정 및 골프메니아의 허리유연성과 근력강화의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 기능 **허리받침 기능** **침대 기능** **스트레칭 기능**

광주총판: (062)225-5100 (취급점모집)